

## 미사토 (三里) 고분

이코마군 (生駒郡) 헤구리초 (平群町) 미사토 (三里) 에 소재하는 분구 길이 35m 의 전방후원분이다. 1975 년에 발굴·조사가 시행되고 같은 해에 나라현 사적으로 지정되었다.

매장시설은 남쪽에 입구가 있는 횡혈식석실 (橫穴式石室) 로 기저석 (基底石) 이 거의 남아 있어 양수식 (兩袖式) 현실 평면구조는 파악되지만, 상부는 도굴 등으로 심하게 파손되어 석실 높이나 천정부의 구조는 알 수 없다. 석실 전체 길이는 12.0m, 현실길이 4.8~4.92m, 현실 중앙 폭 2.44m, 연도부 (羨道部) 길이는 6.16~7.06m, 연도부 폭 1.32~1.45m 를 나타낸다. 주목되는 것은 이시다나 (石棚) 의 존재이다. 안쪽 벽면을 따라 양 측벽에 걸쳐듯이 길이 2.5m, 폭 1.45m, 두께 0.45m 의 거석 한 장을 바닥면에서 높이 0.4m 의 위치에 설치했다. 이시다나를 가진 석실은 와카야마켄 (和歌山県) 이와세센즈카 (岩橋千塚) 고분군 등 기노가와 강 (紀ノ川) · 요시노 가와 강 (吉野川) 유역의 고분에 많이 보이고 나라현 안에서도 상류부의 시모이치초 (下市町) 오카미네 (岡峯) 고분, 오요도초 (大淀町) 마키가미네 (槇ヶ峯) 고분에서 확인 예가 있다. 나라현 북부에서는 유일한 예이고 지역이나 석실의 모습이 다른 점에서 본 고분의 석실 조영에는 기노가와 강 하류에 반거했던 호족인 기시 (紀氏) 가 어떠한 형태로 관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.

현실 중앙의 서쪽 부근에는 조합식 가형 석관 (組合式家形石棺) 의 저석 (底石) 이 남아있고 연도 현문부쪽 위치에서는 추장용으로 생각되는 조합식 상형 석관 (組合式箱形石棺) 이 조사되었다. 가형 석관은 길이 2.0m, 폭 0.68~0.75m 이고 상형석관은 길이 1.75m, 폭 0.45~0.5m 이다. 유물 출토상황으로 현실 내의 이시다나 상부와 그 하부, 현실의 동쪽 부근, 연도의 연문 (羨門) 부근에 목관이 안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.

석실 내 출토유물은 장신구류 (금환 2, 유리구슬 67, 호박 대추 모양 구슬 (琥珀棗玉) 2), 무기류 (칼 1, 쇠화살촉 10 이상, 손칼 5), 공구류 (쇠도끼 1), 마구류 (금동안장장식금구 (金銅裝鞍金具) 1 쌍, 철제안장연결고구 (鐵製鞍金具) 2, 발걸이 (壺鐙) 1 쌍, 금동장종형경판판부재갈 (金銅裝鐘形鏡板板付轡) 1 쌍, 금동장심엽형경판판부재갈 (金銅裝心葉形鏡板付轡) 1 쌍, 금동장종형행엽 (金銅裝鐘形杏葉) 9, 금동장 운주 (金銅裝雲珠) 2, 금동장십금구 (金銅裝辻金) 17, 고구 4, 식금구 (飾金具) 4), 토기류 (스에키 122, 하지키 23, 와기 (瓦器) 6, 청자 1, 술 (羽釜) 3), 동전 2 점, 토제령 1 점이다. 이 중에서는 마구류가 보기 드문 유물로 주목할 만한데 종형 행엽은 후지노키 (藤ノ木) 고분의 B 세트에 보이며 종형 경판과 세트가 되는 점이 이 고분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. 심엽형 경판은 십자문 (十字文) 을 가진 것이고 재갈에 두 종류가 있는 점으로 보아 두 세트의 마구가 부장된 것으로 생각된다. 스에키는 그 연대가 6 세기 후반대에 속하는 것과 7 세기 초두에 속하는 것이 있는데 초장 (初葬) 의 시기와 추장 (追葬) 의 시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.

고분이 위치하는 헤구리다니 (平群谷) 에는 거의 동시기에 축조되었다고 생각되는 분구길이 60m 의 전방후원분인 우도즈카 (烏土塚) 고분이 있는데 이 고분과 같이 이 지역에 반거했던 헤구리씨 (平群氏) 의 「오쿠쓰키 (奥津城)」 라고 불리는 묘역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.